

# 우리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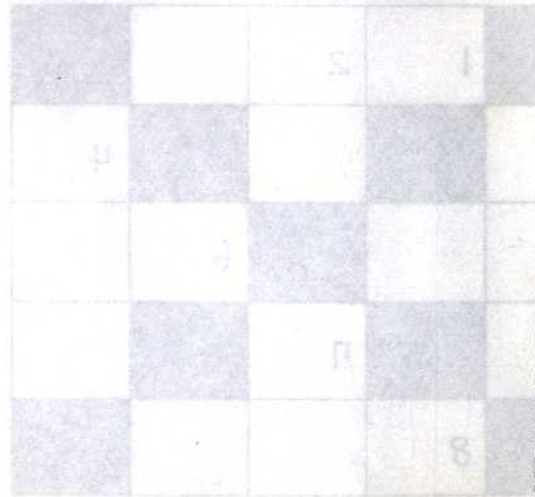
가치소리에 주신 소중한 글을 함께 나누어요^^

갈 곳도 없는 몸이 될 곳이 왔겠는가 -  
떨어진 보따리를 베개삼고 벼를 삼고  
별을 보고 눈물 짓는 나그네 외로운 밤 정든 고향  
왜 버렸나..

무정 세월 속절 없이 어연간 십여년이 갔네  
입신양면 못다한 내 청춘이 어이해 고향 찾드리-  
- 회현역 3,4번의 000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 거리이야기

거리이야기는 노숙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실천단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상당활동가에 전해주시면 소식지를 통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치소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마술 워크샵	2	3 하모니카 사진	4	5	6
7 실천단 야유회	8	9 마술 워크샵	10 사진 워크샵	11	12 하모니카 워크샵
13	14 미술치료 워크샵	15 광복절	16 마술 워크샵	17 사진 워크샵	18
19 하모니카 영상편집	20	21 미술치료 워크샵	22 영상편집 워크샵	23 마술 워크샵	24 사진 워크샵
25	26 하모니카 영상편집	27	28 미술치료 워크샵	29 영상편집 워크샵	30 마술 워크샵
31 사진 워크샵	노숙인 문화행동, '8월' 행사는 문화예술체험 워크샵으로 진행됩니다.				

옛날부터 가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나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실천단의 소식지가 노숙 당사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소식지 이름을 “가치소리”라고 정했습니다.

#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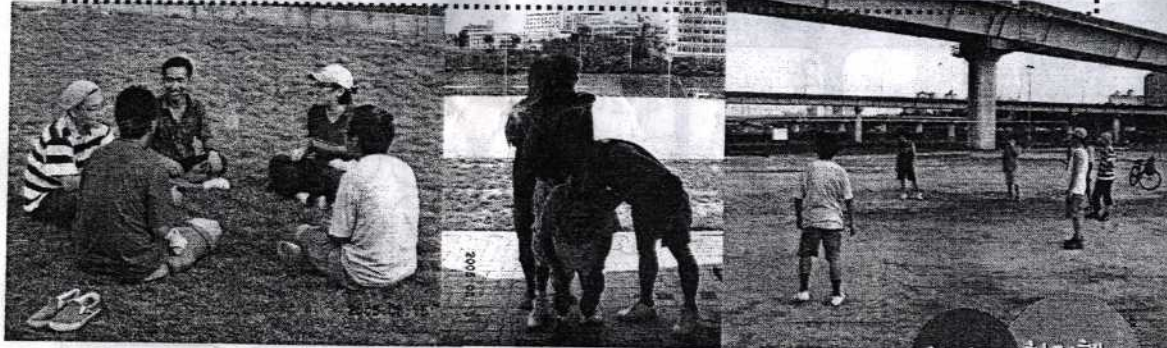
담습니다.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목요상담활동 후기

회현역  
3,4번

기원중  
활동가

매주 목요일 회현역으로 이동하는 실천단 봉고차 안에서 항상 드는 고민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까, 내가 회현역에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살아온 경험도 그분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상담을 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시는 아저씨를 뵈게 되었을 때, 아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들 한분한분과의 따뜻한 인사와 그분들 상황과 고민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저씨들의 상황에 대해 내가 이해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번 목요일에도 제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인사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청량리

차지혜  
활동가

## 함께한 이야기.... - 8월 15일 실천단 아우회

8월 15일, 노숙 당사자모임 활동가와 실천단 활동가 모두 20명이 넘는 인원이 한양대 근처 살곶이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덕분에 걱정했었지만, 막상 와보니 햇볕은 쨍쨍, 땀은 줄줄. 안심 반, 걱정 반이었어요. 가볍게 몸풀이 축구, 살인배구로 몸을 풀고, 팀을 둘로 나눠 발야구를 했습니다. 땀 뻘뻘 흘린 뒤, 환상적인 오이냉국수와 찜밥, 각종 전들로 포식하고는 다시 전투체육으로 돌입! 축구와 배구, 그리고 중간에 수박먹기 스피드 게임까지 제대로 땀흘린 훈련(이 아니라), 아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비빔밥으로 저녁을 먹은 후 청소까지 완벽한 협동으로 마치고 헤어졌지요. 모두의 얼굴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과 더욱 가까워진 마음으로 환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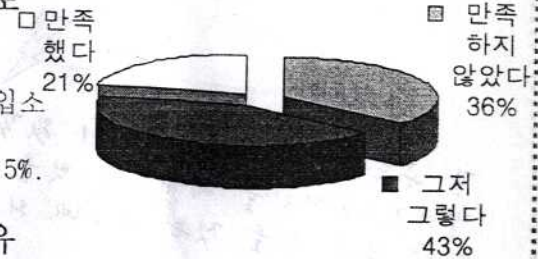
## 특집 노숙인 거리 실태조사 - 3탄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 쉼터(시설)

#### 쉼터생활 경험여부 및 시설생활 만족도

쉼터 혹은 부랑인 시설 생활 경험 여부  
약 55%가 시설생활의 경험 있으며,  
평균 약1년(12.42개월) 동안 쉼터(시설)에 입소  
시설입소 생활자들의 시설 만족도  
만족하지 않았거나, 그저 그랬던 경우가 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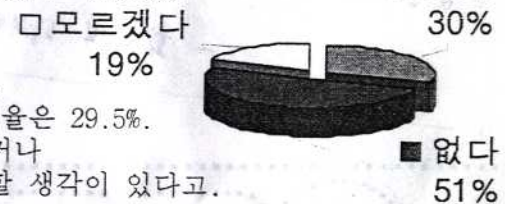


#### 쉼터생활 경험자들의 시설 불만족 사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다양해 적응이 어려웠다" (25.7%)  
"내부반식 생활로 사생활 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음" (16.8%)  
"따라야 할 규칙이 너무 많음" (15.8%),  
"종교행사참여를 강요함" (12.9%)  
"자립에 필요한 시간과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10.9%)

#### 시설입소 희망 여부

시설경험자 중 시설입소 희망비율은 35.8%,  
조사대상 전체 중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29.5%.  
기타응답에서 쉼터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좀더 개인의 사적 생활이 보장된다면 입소할 생각이 있다고.



## 즐거운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게임

이 부분을 잘라서 상담활동가에게 전해주세요.

	1	2		
3				4
5			6	
		7		
	8			

### 가로열쇠

1. 물이나 가루 따위가 조금씩 흘러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5. 뽕내어 어깨를 들먹이는 모양.
6. 동물의 꿈무늬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 반대말은 머리.
8. 차이가 나는 것. 반대말은 공통점.

### 세로열쇠

2. 소나무의 잎.
3.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버릇이나 태도.
4. 생각이나 기대, 추측 따위와는 다르게. 같은 말은 오히려.
7. 노는 일. 본딧말은 <놀음놀이>.

# 문화행동예술체험문화워크숍



문화 워크숍을 시작하다!

노숙자 문화행동 워크숍이 9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1기는 사진, 미술, 미술, 음악, 영상의 다섯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2기 문화행동 워크숍 때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니까, 이번 1기 진행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번 1기 워크숍 때 배웠던 하모니카, 사진, 영상, 미술의 훌륭한 결과물은 9월 문화행동(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하는 거 아시죠?) 때 유감없이 펼쳐 집니

## 영상편집



영상편집은 8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비디오카메라를 손에 들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 가까운 사람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편집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총 8회(1주에 2번)동안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와! 한달 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영화를 볼 수 있겠죠?

## 공공미술



공공미술은 미술치료 워크숍이 끝난 이후 9월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공공장소를 직접 우리 손으로 아름답게 채색하고 가꾸어 더욱 멋지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직접 벽에, 길바닥에 서로서로 즐겁게 웃으며 물감을 칠하고 차차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늘 보던 장소라도 더욱 맘에 들고 애착이 생기지 않을까요?

#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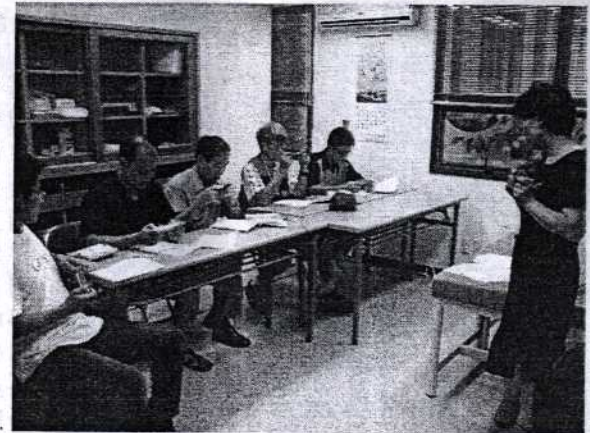
## 사진



우리 일상 속에서 영원히 간직하고픈 순간을 잡아낼 수 있다면! 사진팀은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셔터를 누르며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카메라 다루는 방법, 사물을 멋진 구도로 찍는 방법,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예쁘고 멋지게 찍는 방법들을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이번 모임 때는 "사진으로 이야기 나누기" 한국과 외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작품사진을 보며 사진이란 무언가, 어떤 것을 찍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주까지 스스로 사진을 찍어오라는 즐거운 숙제가 생겼답니다. 필름 한 통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찌죠?

## 마술



지난 8월 1일부터 매주 '햇살보금자리' 3층에는 마술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술? 하면 조금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술교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하면 (물론 피땀나는 연습이 필수!) 우리는 동전이 사라지게도 할 수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숫자를 텔레파시로 알아맞출 수도 있습니다.

마술은 속임수라고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간단한 동전이나 손수건 하나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20분 정도, 거리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 마술교실이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과 마술의 즐거움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마술교실은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2시부터 햇살보금자리에서 계속됩니다~

## 하모니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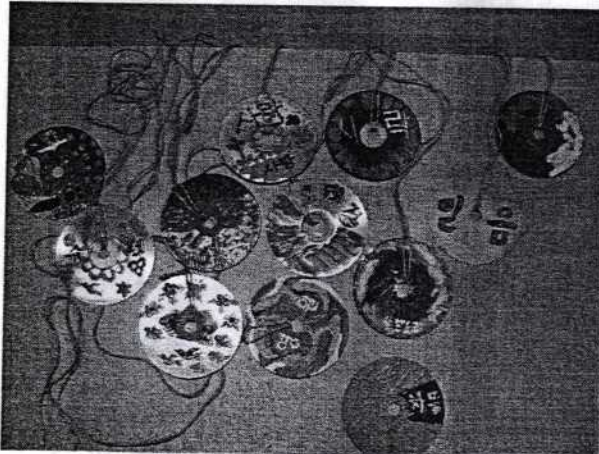
지난 주 금요일 등자동에 있는 '만나샘'에서 하모니카를 배워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모니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짧은 시간 안에 기막힌 하모니카를 자랑하였습니다. 힐릴릭 하모니카 교실은 9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2시~4시, 만나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두 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하모니카를 배울 의향이 있는 분께는 하모니카도 드립니다.



두 달 이후 힐릴릭 하모니카 교실에 계셨던 분들은 보다 발전된, 보다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만나샘으로 오세요~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실 겁니다!

힐릴릭 하모니카교실 : 매주 금요일 2시~4시 / 등자동 '만나샘'

## 미술



8월 14일 첫 시간을 가졌던 미술팀은요! 처음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공CD 뒤에 아크릴 물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드는 명찰을 만들었어요. 각자가 이 팀에서 불리고 싶은 별명과 맘에 드는 무늬, 그림을 그려넣은 CD 명찰은 말그대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명찰이예요! 다 만들고 물감이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한명 한명 돌아가며 별명을 소개하고 그림의 배경을 설명하

는 시간들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떠오르고, 어느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되었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사진과 그림을 넣어 직접 만든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4주 후엔 완성되어진 노트를 볼 때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겠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한 달을 생각합니다...

###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정리기간이 시작됩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8/29~10/7)동안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복원하실 분은 이 기회에 복원비를 감면 받고 복원하시면 됩니다.

- 기 간 : 8월 29일 ~ 10월 7일
- 복원방법 : 실제 살고 있는 주거지의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재등록 신청서 1부(동사무소에 있어요)  
신고인 및 세대주(세대에 편입될 경우) 인감도장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의 주민등록증
- 수 수 료 : 신고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이지만 재정리기간 동안에는 반액만 필요  
(수수료가 10만원인 경우, 5만원만 내면 됩니다.)

### 이동도서관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실천단에서 노숙인의 여가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상담활동가가 상담지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도서목록을 보고 원하는 책을 말씀해주시면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책을 가져다 드립니다. 책이 이미 대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책을 두 권 정도 신청해 주세요. 아직은 책이 많이 없는 없지만, 차츰차츰 더 늘려갈 것이니까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고 싶은 책 제목이나 종류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지요.

#### ● 인기 있는 책 목록

연어 (안도현)  
대두목 (김랑)  
겨울나기 (이외수)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 (톨스토이)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최일도)  
평화로움 (틱낄한)

#### ● 신간 서적

야생초편지 (황대권)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미치 앨범)  
엄마 품으로 돌아간 동심 (정채봉)  
가치혁명 (김원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